

# 한가위, 사찰서 희망보시 받으세요

## 합동차레부터 음악회·사과따기·선무드라 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어느덧 추석이 다가와 달이 차오르고 있다. 풍성한 추석에 대한 설렘도 잠시. 빠른 경기회복에도 여전히 주머니 사정은 팍팍하고 올해 추석 연휴는 유난히 짧기만 하다. 어디 가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교통 대란에 심신이 지칠 것 같아 망설여지지만 한다면 올해는 가까운 사찰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며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을 보내 보자.

추석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는 합동차레 지내기, 추석 달맞이 음악회, 사과 따기 체험, 선무드라 체험, 달빛 잠선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민을 위한 희망보시에 나섰다.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 033-375-9173)는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10월 2-4일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추석맞이 템플스테이'에서는 법흥사 일대 사과 밭 사과를 직접 수확하고, 합동 차레로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눈다. 또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 법흥계곡에서 달맞이 경기 등 풍성



서울 열린선원에서 일반 재가자들이 합동 차레를 지내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단, 사과 따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인당 2.5kg이다.

예산 수덕사(주지 웅산, 041-337-0173)는 숲속에서 잠선을 하며 나와 이웃을 돌아보는 '달·숲·길 그리고 선(禪)' 추석맞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0월 2-4일 진행되는 템플스테이에는 사찰의 일상생활과 함께 추석합동차레, 달빛 잠선, 예산 일대 불교문화유적지 순례, 가야산 숲길 탐방, 달맞이 음악회, 가야산 약초 시식과 예방

의학 체험, 온천욕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수덕사를 포함한 인근 내포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재인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 터, 원호린선원(선원장 법현, 02-381-7970)은 9월 23일 오후 3시 선원내 큰 법당에서 '추석명절 차레 시연법회'를 연다. 법현 스님은 "명절 차레(茶禮)에 술을 쓰는 풍토는 잘못됐다"며 "차레"라는 이름에 맞게 차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산연 기자 un82@buddhapia.com

함께 숨 쉬는 선무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솔잎 따기, 송편 빚기, 승마 체험, 활쏘기(국궁) 체험, 기림사와 동해안의 문무왕 수증릉 등 성지 순례도 진행한다.

충남 계룡시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대진, 042-841-6084)는 10월 2-4일 추석 잠선정신수련회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10월 3일 오전 7·9시 오후 1시 대웅전에서 합동차레를 진행하며 경기 용주사 등 전국 사찰에서 조상을 추모하고 천도하는 합동차레법회가 병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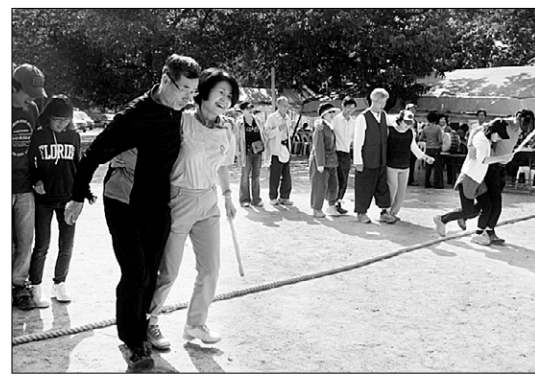
한편, 추석 차례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법회가 마련됐다. 서울 열린선원(선원장 법현, 02-381-7970)은 9월 23일 오후 3시 선원내 큰 법당에서 '추석명절 차레 시연법회'를 연다. 법현 스님은 "명절 차레(茶禮)에 술을 쓰는 풍토는 잘못됐다"며 "차레"라는 이름에 맞게 차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산연 기자 un82@buddhapia.com

# “10주년 포교사단, 종단 대들보되자”

## 서울·경기포교사단 장흥서 연합대회... 6대 회장 선거 10월 23일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버림을 받아도 포교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뛰어간다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0년간 불철주야 포교에 매진해온 서울·경기 지역 포교사단(단장 강홍원)은 9월 13일 경기도 장흥 일대에서 연합대회를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경기 지역 포교사단이 9월 13일 열린 연합대회 겸 체육대회에서 2인1각 경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대회 현장에는 150여 포교사들을 반기는 사물놀이패의 경쾌한 리허설 공연이 한창이었다. 연합대회는 입재시, 2인 1각 달리기, 피구, 줄다리기, 노래자랑 등 잠재된 끼를 쾌청한 가을 하늘아래에서 여과 없이 선보였다.

강홍원 단장은 입재식에서 "10주년을 맞이하는 포교사단은 앞으로 봉사활동의 차원을 넘어 포교사단의 정체성 확립, 포교사의 역할 재고를 통한 불법의호를 펼쳐야 할 것"이라며 "포교사는 종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둥, 대들보, 서까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단장 임기를 2개월여 남기고 있는 강홍원 단장은 연합대회를 마

련에서 재능을 선보인 포교사단들의 열기는 체육대회로 이어졌다. 징 소리와 함께 사물놀이패의 공연은 체육대회의 열기를 북돋웠다.

"하나, 둘, 하나, 둘" 일 맞춰 경기 시작한 2인 1각 달리기는 단합으로 봉사활동의 차원을 넘어 포교사단의 정체성 확립, 포교사의 역할 재고를 통한 불법의호를 펼쳐야 할 것"이라며 "포교사는 종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둥, 대들보, 서까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단장 임기를 2개월여 남기고 있는 강홍원 단장은 연합대회를 마

치고 포교사단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강 단장은 "포교사단은 일반불자와 스님들의 가교역할자로 상황과 공간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재가지도자다. 하지만 종단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활동해온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체성이 없다"며 "어린이·청소년, 군포교의 범위와 규모 확장에 이어 불교적 종교관 확립을 통한 꾸준한 신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홍원 단장은 포교사단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일반포교사단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6대 회장을 보좌보필하겠다"며 "포교사단은 도제양성, 장학사업 등을 통한 인재양성, 사회복지, 승가에 대한 비방과 불교 외호 등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대 입후보자 등록은 9월 20일 ~ 10월 5일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받고, 선거는 10월 23일 포교사단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산연 기자

# “성차별 불식 위한 정책 개혁해야”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22일 토론회

여성불자들이 불교계의 성차별적 상황에 대한 공동 인식과 성인지적 정책 제안을 나섰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은영)과 함께 9월 22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불교계 성인지적 정책제안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실시한다.

이날 토론회는 유정길 법사(정토회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양해경 상임대표(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윤월 스님(전국비구니회 교무부장), 이인자 이사(불교여성개발원), 이진화 부위원장(경북불교심상운영위원회), 조성택 교수(고려대)가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법상에서의 성차별적 규정과 종단 운영에서의

성차별, 출가자와 재가자간의 종속적 관행들, 성차별적 불경 해석 등 여성에 대한 권위주의와 차별 정당화 등에 대해 토론한다.

나무여성인권사무소 관계자는 "불교계는 평등과 인권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비하면 성차별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제도와 정책은 극히 보수적"이라며 "불교계 내부의 보다 적극적으로 앞서가는 문제인식과 실제적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은 곧 폭력"이라며 "불교계는 불교 안의 모순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성을 구비해 생명평화적인 종단 공동체 발전에 앞장서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산연 기자

#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창립 선포

## 불교여성개발원서... 10월 10일 캠페인

승만보살 100인 여성불자들이 다문화가정 봉사에 앞장선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은영)은 9월 18일 오전 10시 조계사 교육관 2층에서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창립총회를 병행하고 창립을 선포했다. 이날 창립 총회에는 조계종 포교국장 부명 스님,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고문 등 30여 명의 봉사자가 참석했다.

이날 창립식에서 선출된 박명자 단장은 "이주민들을 직접 만나 봉사를 해보니 여성불자들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다"며 "불교계의 다문화가정 봉사분야는 낮은 감이 있지만 민족과 국적을 초월해 하심의 자제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은 다문화

가정이나 사찰, 복지관 등에서 한국어 교사, 다문화가정 코디네이터, 한국어 요리, 아이돌보미, 일상생활 정보지원 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해부터 다문화가정지원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해 98명의 봉사자를 배출했다.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은 현재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사찰, 센터, 복지관 등에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원하는 여성불자는 누구나 회원으로 활동 가능하다.

한편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은 10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02)722-2101

이산연 기자

# CARA 발대식

## 전국 선발 20명 구성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문화재환수위원회(회장 백창기)는 9월12일 서울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문화재환수위원회 청년연대(단장 이재권, Culture Assets Redemption Agency, 이하 CARA) 발대식을 병행했다.

이날 해운 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은 강연을 통해 "문화재 환수운동은 잠재된 사대의식을 깨고 민족의 얼과 양심을 되찾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전국 13개 대학에서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은 UCC제작을 통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민적 열의를 고취시키고, 그리스, 이집트, 멕시코, 중국 등 서구 열강에 문화재가 약탈된 국가와 의 연대에 앞장선다.

CARA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10월 일본 방문을 할 예정이다.

이산연 기자

# 신행계시판

●**목요 위빠사나 특별법회**=상좌불교한국명상원은 12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목요 위빠사나 특별법회를 연다.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 요인>을 교재로 황영재 법사(한국명상원 지도자)가 지도한다. 수행은 위빠사나 법문과 경행, 좌선, 명단 순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20만원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512-5255

●**추석연휴 집중수행**=보리수선원은 10월 1-4일 추석연휴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0월 19-24일에는 위빠사나 기본수행을, 10월 2-10일 집중수행도 진행된다. (02)517-2841

●**참선 특별교육**=서울 공생선원은 매주 화, 수, 목요일 참선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화요일 참선반은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돈오입도요문론>, 수요일 참선 입문반은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일상속에서의 수행 선문활용>를 교재로

무각 스님이 지도한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유식 30송>으로 12월까지 허겨 스님이 수업을 진행한다. (02)900-2448

●**심천배 응맹정진**=분당 하안마을음선원은 9월 26일 오후 9시부터 27일 오전 7시까지 3000배 응맹정진을 실시한다. 오후 7시에는 초보수행자를 위한 절교육이 진행된다. 수련비는 3만원. (02)456-0035

# “미래불교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깨달음은정불교문화진흥원

##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시상식

9월12일 오전 11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평택, 남양주 등 전국 8개 지역 80여 교사장에서 2천여명의 청소년들이 불교교리 경시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진지함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 미래불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불교의 희망의 등불이 밝아진 날입니다. 경시대회에 보내주시는 성원, 열정,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경시대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_ 불기2553(2009)년 9월 26일(토) 오후 2시
- 장 소\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